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의 譯註(2)

尹淳一·朴元基·韓雲珍*

<목 차>

1. 《釋迦如來十地修行記》(제3지-제6지)의 解題
2. 《釋迦如來十地修行記》(제3지-제6지)의 譯註
 - 2.1 일러두기
 - 2.2 第三地
 - 2.3 第四地
 - 2.4 第五地
 - 2.5 第六地

1.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의 解題

본고는 낙은본 《釋迦如來十地修行記》를 역주하는 두 번째 논문이다. 제3지, 제4지, 제5지, 제6지를 譯註한다. 낙은본 《釋迦如來十地修行記》에 관한 문학적 연구는 다음 몇 가지 방면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문학사적 위상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가 작품에 삽입된 운문에 관한 연구이며, 셋째는 소설로서의 특성이나 불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¹⁾ 이 가운데 첫째 문학사적 위상에 관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주저자, chunyi@hanmail.net) · 원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교신저자, shengyun@hanmail.net) ·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사(교신저자, hwani66@naver.com)

1) 김보현, <서가여래십지행록에 대한 '연속 설화'의 의미와 과정 연구>, 《우리문학연구》 58, 2018, 31쪽: 이 논문에서 김보현은 한글본 《십지행록》에 관한 연구 방향을 정리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釋迦如來十地修行記》 연구와 혼용하여 쓰고 있어 실제 방향성에 대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보현이 본 논문에서 제기한 '연속 설화'적 특징은 연속형 설화로서의 해석 방식을 탐색하고 있다. 전체이면서 부분이 되

한 연구는 둘째와 셋째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가장 많은 연구 성과는 고전소설이나 설화적 관점에서 낙은본의 가치를 증명한 논문으로 파악된다. 주로 變文 특성에 관한 논증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초석으로 불경과의 관계를 모색한 것이다. 이는 《釋迦如來十地修行記》가 석가모니의 전생과 일대기를 다루므로 불경과의 관계 탐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고 또한 먼저 불경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는 역주를 위한 기초로서 문학적 변용에 관한 내용 분석이기 때문이다. 불경과의 관계를 불경이 불경 고사에 남아있는 정도라는 큰 범주로 하여 분류하면 내용이 온전한 것, 변화된 것, 모티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요약된다.²⁾ 이 같은 분류는 불경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낙은본과 저본 불경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연구방법으로 채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각지를 살펴본다.

먼저 제3지의 저본 불경은 《賢愚經》, 《撰集百緣經》으로 불경의 내용이 남아있는 것에 해당한다. 《賢愚經》<1. 梵天請法六事品>에서 전하는 고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묘색왕(妙色王)은 백성들에게 물질적 보시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묘색왕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이 해탈하기를 발원한다. 이를 들은 毘沙門天은 夜叉로 변신하여 해탈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대신 황후와 태자를 먹이로 바칠 것을 요구한다. 황후와 태자는 스스로 기꺼이 보시한다. 후일 황후와 태자는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와 다르게 낙은본에는 왕 자신을 바치라는 요구가 추가되어 있고, 다른 저본인 《撰集百緣經》에 낙은본 제3지의 내용이 온전히 남아있다. 먼저 사구계(四句偈)의 절반만 알려주고 왕 자신을 보시하면 나머지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같다. 다음 변신하는 천왕이 비사문천이 아니라 제석천으로 같다.

다음 제4지의 근거 경전은 《賢愚經》과 《菩薩本生鬘論》, 《金光明經》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賢愚經》<2. 摩訶薩以身施虎品>에서 주인공 태자의

는 한글본 《십지행록》에 관한 해석의미론적 읽기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2) 延紹始, <佛經故事的 中國故事化 과정상의 특징 및 의의>, 《중국어문학논집》 115, 2019.

이름이 낙은본과 같은 마하살타이다. 《賢愚經》에서 셋째 태자인 마하살타 태자는 항상 자비로워 모든 생명을 가없이 여긴다. 가족과 함께 숲에 나갔는데 기아로 빈사 상태에서 새끼를 먹으려는 호랑이를 보게 된다. 마하살타는 먹이가 될 것을 발원하고 부모 형제 모르개 자신의 몸을 보시한다. 갈가리 찢어져 사라진 마하살타의 시신을 보고 놀란 황후와 형들이 슬퍼한다. 마하살타태자가 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 도솔천에 태어났음을 알려준다. 낙은본 제4지의 내용은 이와는 다르다. 금광국의 태자 마하살타는 왕위와 권력을 버리고 숲으로 떠나 수행을 즐긴다. 호랑이가 나타나 배고프니 육신을 보시하라 하고 태자는 기꺼이 허락한다. 호랑이는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포효하며 위협했지만 태자는 아무 공포심 없이 태연자약했다. 호랑이는 다시 태자에게 절벽에서 떨어지면 받아먹겠다고 제안하고 태자는 바로 절벽에서 몸을 날린다. 구름이 피어올라 태자를 받아주고 호랑이는 본 모습인 帝釋天의 형상으로 나타나 장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전한다. 불경에서는 승천하여 도솔천에 있지만, 낙은본에는 태자가 죽기 전에 천신이 화현하여 자초지종을 알려주고 수기를 한다. 천신은 제3지와 같은 제석천이며 변신 모티브가 나타나서 경전과는 다르게 변용되어 있다.

제5지에서는 인욕선인이 등장한다. 저본으로 비교할 경전은 《賢愚經》<12. 羼提波梨品>³⁾이며 석가모니의 전생 인욕선인이 인욕행을 실천한다. 《金剛經》의 한 구절인 ‘我昔爲歌利王割截身體(나는 예전에 가리왕에게 몸이 자르고 끊겼다)’⁴⁾에 대한 일종의 전고라고 볼 수 있다. 《賢愚經》<12. 羼提波梨品>과 낙은본은 거의 유사하며 왕에 대한 예절 부분 등의 일부 내용에서 당시 사회상을 보여준다. 낙은본에서 인욕선인은 서쪽 옥은산에서 수행하며 도를 이루었고 그 산의 못 생명이 선인에게 공양을 올렸다. 당시 歌利王이 신하를 보내 가르침을 청하였으나 오로지 수행할 뿐 반응하지 않았고, 이에 국왕이 직접 찾아왔으나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가리왕이 무엇을 수행하는지 질

3) 《賢愚經》 2권(ABC, K0983 v29, p.1017b01).

4) 《金剛般若波羅蜜經》 1권(ABC, K0013 v5, p.981a23).

문하자 무엇도 참을 수 있는 인욕을 수행한다고 대답한다. 왕은 칼로 코, 귀, 손, 발을 잘라버리고 인욕선인은 여전히 태연자악했다. 왕이 억지로 참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자 인욕선인은 자신의 인욕행이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몸의 7곳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발원한다. 갑자기 벽력과 뇌우가 지나가고 얼마 후 비가 그치자 인욕선인의 몸은 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인욕선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가리왕은 교진여 비구이다. 낙은본 제5지에는 당대의 국왕과 수행자의 관계에 대해 짐작할만한 상황이 등장한다. 신하가 가거나 왕이 직접 찾아와도 예를 표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여 慧遠의 沙門不敬王者論⁵⁾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본인 《賢愚經》에는 이와 같은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리왕이 일으키는 분노가 좀 더 세속적이다. 경전에서 가리왕은 비빈들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간다. 가리왕이 잠든 사이 인욕선인의 거룩함에 반한 비빈들이 선인의 주변에 모여 공양을 올린다. 홀로 깨어나 이 모습을 발견하고 가리왕은 질투와 불쾌함으로 인욕선인에게 도를 어느 정도 얻었는지 추궁하고, 인욕을 시험하며 割截身體 한다. 이후 인욕선인 스스로 선언하는 진실한 말로 몸이 회복하는 점은 같다.

낙은본의 제6지는 《報恩經》, 《生經》, 《大智度論》, 《經律異相》, 《四分律》⁶⁾, 《賢愚經》<37. 善事太子入海品>, 《大方便佛報恩經》<惡友品> 등을 저본으로 한다. 인물 배경, 사건이 비교적 복잡하게 나타난다. 형 선우태자, 동생 악우태자는 이름에서 이미 인물의 특성을 시사하고 있다. 낙은본은 경전과는 다르게 배경, 인물, 민속 등 여러 요소가 변용되어 나타난다. 낙은본의 배경은 바라국 왕궁에서 바닷가, 용궁으로 이동하며 여의주를 구하러 求法 기행을 떠난다. 인물은 부황과 황후, 태자비, 비빈 등 사람과 사람이 아닌 제석천, 동해 용왕 娑伽羅, 海門大仙, 土地神(仙客) 등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민속적 요소도 나타난다. 태자비가 선우 태자를 찾는

5) 沙門不敬王者論: 東晉 廬山 慧遠이 桓玄과 서간을 통해 토론하며 맞선 이론, 말 그대로 '사문(승려)은 왕에게 경의(禮)를 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계는 남북조시대에 유효하였고 당대에 강력한 왕권이 들어서면서 점차 왕법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6) 사제동, <<선우태자전> 연구>, 《어문연구》 제9집, 1976, 99쪽.

날이 龍舟 경기가 열리던 오월 단오이기 때문이다. 태자비와 선우태자의 만남은 知音を 연상하게 한다. 누군가 琴을 연주하는 소리에 태자비가 이끌리고, 그곳에 선우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눈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진실한 말로 발원하는 것은 같으며 여기에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된다. 부황과 황후가 선우태자의 행이 진실하니 두 눈을 돌려 달라고 기원한 후에 태자비가 눈을 세 번 훑어준다는 내용이다. 각 인물의 전생은 선우태자가 석가모니, 악우태자는 제바달다, 부황과 황후는 정반왕과 마야부인, 태자비는 야수다라이다. 선우태자 고사는 이후 변용되어 고전소설로 발전한다. 1975년에 발견된 《月印釋譜》의 낙장 훼손본에 <釋譜詳節>의 일부분으로 실려 있으며,⁷⁾ 변화된 내용은 <적성의전>, <六美堂記>(金太子傳) 등의 소설로 발전한다.⁸⁾ 러시아 소장 돈황 사본 <雙恩記>⁹⁾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雙恩記>第七은 《報恩經》<惡友品>의 선우와 악우태자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여 이를 ‘報恩經變’이라 하며 바다에 들어가 여의주를 구하는 入海求珠가 자세하다.¹⁰⁾

이상 제3지에서 제6지는 석가모니 전생을 내용으로 하는 불경을 기본으로 변용되었으며, 지극한 불교 실천행을 강조한다. 제3지에서 제6지 모두 자신의 육체를 바치는 고사로 보시를 강조하며 제5지는 인육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하거나 훼손된 신체는 바로 회복한다. 제3지는 도술천의 승천으로 나타나고, 제4지는 보시하기 전에 미리 구해준다. 제5지, 제6지는 진실함을 천명하고 그 증거로 전처럼 회복된다. 이를 불보살의 眞實行¹¹⁾이라 하는데 진

7) 김영배, <新發見《月印釋譜》毀損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68·69, 1975, 37쪽.

8) 이강옥,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 勸念要錄, 釋迦如來十地行錄(記), 賢愚經, 善事太子入海品, 적성의전, 육미당기>, 《고전문학연구》 4, 1988, 139쪽; 신명태, <<적성의전(積成義傳)>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위치>, 《한국어와 문화》 8, 2010, 8-9쪽에서 재인용.

9) 박광수, 《善友太子傳의 系統的研究》,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24쪽; 簡佩琦, <敦煌報恩經變與變文<雙恩記>殘卷>, 《敦煌學輯刊》(1), 2005, 22-23쪽; 方南生, <<雙恩記>創作年代初探>, 《社會科學》(5), 1983, 102쪽.

10) 簡佩琦, <敦煌報恩經變與變文<雙恩記>殘卷>, 《敦煌學輯刊》(1), 2005, 27쪽.

11) K. S. 케네스 첸(Kenneth Kuan Sheng Ch'en) 저, 장은화 역, 《중국인의 삶과 불교의 변용》, 씨아이알, 2012, 21-23쪽; 범어 satyakriyā이며 영역 하면 'the act of truth'이

실행이란 행위의 진실성을 천명하면 말하는 그대로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제6지는 태자비의 역할이 부가된다.

본고는 《釋迦如來十地修行記》에 관한 학술적 역주다. 《釋迦如來十地修行記》와 같은 내용을 다룬 한글본이 존재하나 모본이 낙은본과는 다르고, 의역 위주라 전문성을 지닌 역주는 본 논문이 유일하다.¹²⁾ 이와는 별개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저자와 판본에 관한 이견을 첨언한다. 지난 역주에서 언급하였듯 저자 少室山人은 중국에 유학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문적 지성을 갖춘 고려의 속강승으로 여겨진다.¹³⁾ 그런데 돈황에서 일부가 발견되었고,¹⁴⁾ 서문과 발문의 내용에 근거하면 중국인에 의해 중국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서문의 少室山이 崇山の 일부이며, 발문의 伊府가 明代에 황자를 관리하던 부서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¹⁵⁾ 이는 충분히 유의미한 주장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증명한 창작연대¹⁶⁾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여 이를 고려한 논의의 심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후속 논의를 기대한다.¹⁷⁾

다.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행위자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거나 결의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진리의 말을 성취하고, 그 말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설법하는 것을 일컫는다. 진실행은 말과 그의 실현이라는 증명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 ‘an assertion of truth’로도 번역 가능하다. 말·언어의 중요함을 진실행이란 이러한 말이 그대로 실현되어 불보살이 하는 언어의 실제성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 12) 첫 번째 역주에서 밝혔듯 국역본은 한문 현토본을 포함하여 총 3종이 전한다. 의역 위주며 모본이 낙은본 계통의 유통본으로 최초로 한글 토를 달아놓은 안진호의 현토본은 낙은본 본문과 비교하면 내용을 아예 누락 했거나 전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역주 작업이 낙은본 《釋迦如來十地修行記》에 관한 최초의 전문 역주라는 학술 가치를 지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 13) 박병동, 《불경전래설화의 소설적 변모 양상》, 42쪽, 61쪽; 윤순일 외,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의 譯註(1), 213쪽.
- 14) 東景南·郝永, <論敦煌本《佛說孝順子修行成佛經》的文學成就>, 《西安電子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6), 2006; 廣鋈, <《佛說孝順子修行成佛經》의若干資料①>, 《南亞研究》(2), 2007; 王孟, <談敦煌遺書《佛說孝順子修行成佛經》的研究>, 《敦煌研究》(4), 2015.
- 15) 최연식, <조선 후기 불교소화집의 수용과 유통>, 《佛敎學報》80, 2016, 120-122쪽.
- 16) 윤순일 외,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의 譯註(1)>, 《중국어문논역총간》 45, 2019, 208쪽, 각주3) 참조. 기존의 주장을 정리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어문연구》12, 1983, 4쪽; 이강옥,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 勸念要錄, 釋迦如來十地行錄(記), 賢愚經 善事太子入海品, 적성의전, 육미당기>, 《고전문학연구》4, 1988, 142쪽; 崔皓哲,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의 小說史的展開>,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이상 연도 순).

2. 《釋迦如來十地修行記》(제3지-제6지)의 譯註

2.1 일러두기

(1) 역주 대상인 원문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본 판본 소장자의 호를 취하여 낙은본(樂隱本)이라고 약칭한다.

少室山人 校正 伊府(朝鮮) 刊, 《釋迦如來十地修行記》, 木板本, 樂隱 姜銓燮¹⁷⁾ 所藏本, 1660; 刊記: 大明正統戊辰(1444)端陽伊府用梓命工刊行.

(2) 본 논문의 역주는 낙은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안진호 현도본 및 국역본, 정서운 국역본을 참고하였다. 번역은 되도록 원문의 본의를 따르는 직역을 위주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일부 의역을 하였다. 우리말 번역문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원문의 중국 인명과 중국 지명은 모두 현대 이전에 해당되므로 현대 한국한자음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3) 낙은본은 구두와 주해가 없는 백문(白文)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고는 낙은본에 구두를 첨가하여 원문을 편집하고 이와 함께 국역을 제시하였다. 대조의 편의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각 지(地)를 일정한 분량으로 구분하였다.

(4) 기존에 안진호, 정서운 등의 번역본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선본인 낙은본과 차이가 컸다. 본고는 선본인 낙은본을 기준으로 충실한 번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7) 한국적 변문으로 보는 기존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문학 논문으로 존립하는 이유는 우선, 근대 중국어로 작성된 문헌으로 어학적·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8) 姜銓燮(1933-2004): 호는 樂隱이고, 한국고전시가를 전공한 국문학자이다. 조선시대 문인문집을 비롯하여 《九雲夢》, 《謝氏南征記》 등 고소설 목판본과 필사자료를 발굴한 고서 愛藏家이다. 그의 저서로는 《韓國古典文學研究》, 《歌辭文學研究》, 《樂隱別曲의 研究》 등이 있다.

(5) 원문에는 별도의 주석이 없다. 역문의 주석은 모두 역자가 붙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단어나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풀이하였으며 일부는 배경 지식을 포함하는 백과사전적 풀이를 덧붙였다.

(6) 편쪽의 제한으로 본 논문에서는 第三地, 第四地, 第五地, 第六地에 대한 譯註만 제시한다. 第七地 이후의 분량은 향후 별도의 논문을 통해 제시하겠다.

2.2 第三地

第三地

제3지

昔日, 如來在多寶國, 作大國王, 故¹⁹⁾依三寶,²⁰⁾ 廣行慈悲, 救度萬民, 常愛布施.²¹⁾ 國王忽一日, 發大願, 望求一善知識²²⁾相遇, 欲求四句無生法門²³⁾ 頓悟之偈, 約後十二年, 不遇善知識. 忽一日, 陞殿見空中, 有一鬼, 甚生得容貌醜惡, 髮似硃砂,²⁴⁾ 牙似劒樹.²⁵⁾

예전에 여래께서 다보국(多寶國)에서 국왕이 되셨다. 삼보(三寶)에 귀의하

19) 故(귀): '歸'의 이체자로 쓰였다.

20) 삼보(三寶)는 불교도가 존경하고 공양하여야 할 불(佛)과 법(法)과 승(僧)을 말한다. 불교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삼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은 불교에 귀의한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이다.

21) 布施: 대승불교의 실천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로 베풀어 주는 일을 말하며, 중생의 구제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타정신의 극치.

22) 善知識: '좋은 친구'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kalyāṇa-mitra의 번역어로 선친우(善親友)·지식(知識)·선우(善友)·친우(親友)·승우(勝友)라고도 한다. 음역어로는 가라밀(迦羅蜜)·가리아당밀달라(迦里也囊蜜怛羅) 등이 있다. 불교에서 불도(佛道)에 들어가도록 바르게 이끌어주는 훌륭한 지도자를 일컫는다.

23) 無生法門: 무생(無生)이란 생(生)과 멸(滅)이 모두 없다는 것으로 무생법문은 나고 없어짐이 없는 불법의 가르침을 말한다.

24) 硃砂: 수은(Hg)과 유황(S)과의 화합물인 진홍색 광물을 말한다. 주사(朱砂)·단사(丹砂)라고도 칭하며, 수은 제조, 붉은색 채료(彩料), 약용 등으로 쓰인다.

25) 劒樹: 가지, 잎, 꽃, 과실(果實)이 모두 칼로 되어 있다는 지옥(地獄)의 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칼날과 같은 이(牙)의 형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 널리 자비를 행하시어 만민을 구제하느라 항상 보시를 좋아하셨다. 국왕께서 어느 날 큰 서원을 하시어 어느 선지식을 만나길 바라셨는데, 사구(四句)의 무생법문(無生法門) 돈오(頓悟)의 계를 얻고자 하셨다. 약 12년이 지났는데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 문득 어느 날 임금께서 전(殿)에 오르시고 하늘을 보니 귀신 하나가 얼굴은 아주 추악하게 생겼고 머리털은 주사와 같이 붉었으며 어금니는 검수(劍樹) 같이 날카로웠다.

墜下雲頭，殿前而立，山呼萬歲.²⁶⁾ 皇帝聞奏，²⁷⁾ 心中大驚，遂問神人²⁸⁾ 曰：“卿是何人？”鬼使答²⁹⁾ 曰：“我聞，皇帝曰求善知識，今特來，與帝說四句偈，³⁰⁾ 度脫³¹⁾ 天子。”是時，天子聞奏，心生歡喜，並無警怖之心。遂請神人，高登寶座，天子焚香禮拜，告善知識：“朕欲求四句偈，願神人說知。³²⁾”

그 귀신이 구름 사이로 내려오더니 탑전 앞에 서서 임금을 향해 만세를 올렸다. 임금은 이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그 신인(神人)에게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그러자 귀신이 답했다. “제가 듣건대 황제께서 선지식을 구하신다고 하여 지금 특별히 와서 황제께 사구계(四句偈)를 들려드리고 천자를 해탈케 하고자 합니다.” 천자가 이 말을 듣자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윽고 그 신인(神人)에게 보좌(寶座)에 오르도록 청하고는 천자가 친히 향을 사르며 절을 하고 선지식에게 아뢰었다. “짐이 사구계(四句偈)를 구하오니 신인께서 말씀해주십시오.”

26) 나라의 큰 의식에 황제나 임금의 축수를 나타내기 위해 신하가 두 손을 들고 ‘만세’나 ‘천세’를 함께 외치는 일을 말한다.

27) 聞奏:天子께 아뢰다. 임금에게 알리다. 奏聞과 같다.

28) 神人: 신선 즉 수행득도하여 현실의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장생불사하는 사람.

29) 使答: 본래 겹어문 ‘使人答’에서 겹어인 ‘人’이 생략된 형태이다. 아래의 ‘使言’도 ‘使人言’의 생략 형태로 봐야 한다.

30) 四句偈: 고대 인도시의 한 형식으로 각각 8음절로 이루어진 네 개의 구절로 이루어진다. 산스크리트어로 sloka라고 한다. 계(偈)는 불교의 가르침을 운문으로 표현한 짧은 시구를 말한다. 산스크리트 가타(gatha)에서 음을 따 표현한 것으로, 가타를 번역한 송(頌)과 같은 뜻이다. 보통 계송(偈頌)이라고 한다.

31) 度脫: 인간 세상의 생사고난을 벗어나서 선불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32) 說知: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이 알게 하다.

是時, 鬼使言: “我肚中飢餓, 難以說之, 問天子, 取討³³⁾正宮皇后, 並太子所食, 肚中飽滿, 方可說偈.” 天子聞說, 依命宣³⁴⁾皇后並太子, 出宮直至殿前, 王曰: “朕要求四句無常之偈, 今被神人化³⁵⁾汝二人充飢, 方可說法. 卿³⁶⁾等肯否?” 皇后及太子曰: “久聞, 陞³⁷⁾下廣發大願, 世世行檀,³⁸⁾濟度衆生, 爲求佛果,³⁹⁾子母今朝, 只可相助, 豈可違乎? 請神人上座, 子母捨身, 與神人充飢.” 卽時, 神人將皇后太子, 晃若之間,⁴⁰⁾吞入腹中, 便陞高座, 聽說偈言:

그러자 귀신이 사람을 시켜 말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설법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자에게 부탁하건대 정궁황후와 태자를 먹기를 바라옵니다. 배가 불러야 비로소 게(偈)를 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자가 이 말을 듣고는 명에 따라 황후와 태자를 불러 궁을 나와 탑전에 이르게 하고는 말씀하셨다. “짐이 사구(四句)의 무상지계(無常之偈)를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신인(神人)이 그대 둘을 죽게 하여 주린 배를 채워야 비로소 설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대들은 기꺼이 하겠는가?” 그러자 황후와 태자가 말했다. “폐하께서 널리 크게 서원하시어 세세(世世)에 걸쳐 보시를 행하고 중생을 제도(濟度)하고 불과(佛果)를 구하신다고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자식으로서 이제 그저 도와드릴 따름입니다. 어찌 뜻을 거스르겠나이까? 청컨대 신인(神人)께서는 보좌에 오르소서. 어미와 자식이 몸을 버려 신인(神人)의 주린 배를 채우게 하겠나이다.” 바로 그때 신인(神人)은 황후와 태자를 눈 깜짝할 사이에 뱃속으로 삼켜 버렸다. 그리고는 높은 자리에 올라 계송을 설하였다.

33) 取討: 요구하다, 받아내다.

34) 宣: 여기에서는 선소(宣召) 즉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만나는 것을 말한다.

35) 化: 化는 본래 死와 동일한 ‘죽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사동용법으로 쓰여 목적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죽게 하다’ 즉 ‘죽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6) 卿: 군주가 신하를 혹은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37) 陞: ‘陞’자의 오자로 보임.

38) 行檀: ‘檀’은 범어 ‘dāna’의 음사이며 ‘배풀다’는 의미의 보시를 의미한다. 즉 ‘行檀’은 ‘보시를 행하다’이다.

39) 佛果: 수행으로 이룬 부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또는 깨달음을 말한다.

40) 晃若之間: 순간, 찰나

有愛故生惱, 有愛故生怖

애착이 있기에 번뇌가 생기고, 애착이 있기에 두려움이 생긴다.

說此二句, 默而不說, 大王問曰: “四句爲偈, 因何只說半偈?” 神人曰: “肚中未飽, 說不盡乎!” 王曰: “再用何物, 得充足也?” 神人曰: “陛下敢捨自身, 充足飽滿, 說是四句.” 大王默而思之: “朕之幻身,⁴¹⁾ 曠大劫⁴²⁾來, 虛生浪死,⁴³⁾ 四大假合,⁴⁴⁾ 終收[歸]無常. 吾今捨此, 不堅之身, 當來⁴⁵⁾願證, 金剛之體隨,⁴⁶⁾” 勅群臣: “吾今爲求半偈, 捨此全身, 專求佛果, 解脫衆生.” 百官聞說, 悲啼⁴⁷⁾哽咽,⁴⁸⁾ 悶絕⁴⁹⁾擲地.⁵⁰⁾ 良久乃甦,⁵¹⁾ 皆叩頭曰: “願且爲君, 統領百姓.”

이 두 구절만을 말하고 묵묵히 말이 없자 대왕께서 물으셨다. “네 구절이어야 하나의 게(偈)가 될 터인데 어찌 절반의 게만 하십니까?” 그러자 신인이 말했다. “배가 아직 다 차지 않아 말을 다 하지 못했소.”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그럼 무엇을 드셔야 배가 족히 채워지겠습니까?” 이에 신인이 말했다. “폐하께서 감히 자신의 몸을 버리시어 저의 배가 족히 채워지고 포만해지면 네 구절을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묵묵히 생각하였다. “나의 이 거짓된 육신은 광대겁(曠大劫) 이래로 헛되이 태어나 부질없이 죽는 것이고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사대(四大)가 가합(假合)하였다가 끝내 무상(無常)으로 돌아간다. 내가 이제 이 견고하지 못한 몸을 버리고 장차 금강의 굳센 몸과

41) 幻身: 허깨비같이 허망하고 덧없는 몸이라는 뜻으로, 주로 불교에서 사람의 육신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42) 曠大劫: 무한히 멀고 긴 시간.

43) 浪死: 헛되이 죽다.

44) 四大假合: 우리의 몸이 물질의 구성요소인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사대(四大)가 거짓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졌음을 말한다.

45) 當來: 장래에, 곧.

46) 體隨: 隨는 髓의 誤記로 보인다. 體髓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체(體)와 신체의 중심부를 이루는 부분(髓)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47) 悲啼: 슬퍼하다.

48) 哽咽: 울음으로 목이 메다.

49) 悶絕: 혼절하다.

50) 擲地: 땅을 두드리며 울부짖다.

51) 甦: 깨어나다. ‘蘇’의 後起字이다.

뱃골을 증득하기를 바라노라.”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하며 “오늘 나는 절반의 계를 마저 구하기 위해 이 온 몸을 버리고 불과(佛果)를 온전히 구하여 중생을 해탈코자 하노라.”라고 하였다. 백관들이 이 말을 듣고는 슬퍼 목이 매었고 혼절하거나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한참 후에 깨어나서는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원컨대 계속 임금이 되시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王曰: “須彌山高, 尙有崩崖,⁵²⁾ 日月雖明, 亦有磨滅,⁵³⁾ 亘古亘今,⁵⁴⁾ 誰不無常乎?” 囑付大臣已罷, 遂請神人曰: “願捨幻軀, 你若飽沃,⁵⁵⁾ 與吾眞性, 說此半偈.” 卽時鬼使, 施威布勇, 吼聲大振, 踴躍佞昨,⁵⁶⁾ 種種⁵⁷⁾ 怖勢. 觀其大王, 面容不改, 端然⁵⁸⁾ 如舊, 全無怖懼之心. 神人嘆言: “善哉, 善哉! 奇佞⁵⁹⁾ 匪凡, 此乃眞聖人也.” 復陞高座, 爲王說半偈曰:

그러자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수미산이 높다고 하지만 오히려 무너질 때도 있고, 해와 달이 밝다고 하지만 소멸될 때도 있는 법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누가 무상(無常)하지 않았던가?” 대신들에게 분부하기를 마치고 신인(神人)에게 청하여 말했다. “원컨대 저의 거짓된 몸을 버리오니 당신께서 만약 배가 부르거든 저의 영혼에게 나머지 절반의 계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귀신이 위용을 펼치며 소리를 한번 울려 크게 떨쳤다. 그러더니 뛰어다니며 흘리는 소리를 외치고 갖가지 무서운 형세를 보였다. 이때 임금을 살펴보니 낮빛은 바뀌지 않고 예전과 같이 모습이 단정하였으며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신인(神人)은 감탄하며 말했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기이하고 비범하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인이로다.” 그러고는 다시 고좌(高座)에 올라 임금

52) 崩崖: ‘崩摧’와 같다. 즉, 무너지다.

53) 磨滅: 소멸하다, 마멸하다. 없어지다.

54) 亘古亘今: ‘亘古’는 ‘오랜 옛날’을 말한다. 이는 즉, ‘亘古及今(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의미이다.

55) 飽沃: 여기에서 옥(沃)은 어(飫)의 誤記로 보인다. 飽飫는 ‘배불리 먹다(吃飽)’의 의미이다.

56) 佞昨: 녍(佞)은 미혹하거나 흘리는 것을 말하며 책(昨)는 야단스럽게 떠드는 것을 말한다.

57) 種種: 각양각색의, 모든

58) 端然: 장중하고 엄숙한 모양.

59) 奇佞: 기이하다. 비상하다.

을 위해 나머지 절반의 계를 설하였다.

若能離愛者, 無惱亦無怖.

만약 애착을 떠날 수 있다면 번뇌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지어다.

是時神人, 與人王說無常偈已, 忽見, 祥雲⁶⁰ 就坐⁶¹ 盤旋⁶² 紫氣⁶³ 唐唐⁶⁴ 從空而降. 上看雲中, 一天人⁶⁵ 朱履天冠⁶⁶ 容顏異常, 告大王曰: “吾乃非善知識也. 吾是天帝釋⁶⁷ 三十三天⁶⁸ 主也, 下來試汝, 果有出世⁶⁹ 之志, 解脫之心. 當來必證菩提, 度救衆生.” 化道金光而去. 却見皇后太子, 俱在殿前, 端然如故. 卽時, 大王設起早朝, 策立太子爲君, 辭別文武兩班, 九卿四相, 棄卻宮妃嫔女⁷⁰ 徑入白雲山中, 結草爲庵, 練磨身形, 攝心⁷¹ 養道, 末後⁷² 坐化而逝.

신인이 임금에게 무상계(無常偈) 설하기를 마치자 갑자기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땅을 향해 빙빙 돌더니 보랏빛 기운이 드넓게 공중에서 드리웠다. 구름 가운데를 보니 한 천인(天人)이 붉은 신발을 신고 천관(天冠)

60) 靄靄: 구름이 성한 모양.

61) 坐: ‘地’의 이체자이다.

62) 盤旋: 빙빙 돌다.

63) 紫氣: 보랏빛 기운. 상서로운 기운. 서기(瑞氣).

64) 唐唐: 광대한 모양.

65) 天人: 선인(仙人), 신인(神人)과 같은 의미이다.

66) 天冠: 구슬과 옥 등으로 꾸며 만든 좋은 관(冠).

67) 天帝釋: 수미산의 꼭대기 도리천(忉利天)의 주인 제석천(帝釋天)을 말한다. 불교의 수호신으로 고대 인도의 신인 인드라(Indra Sákra)를 수용한 것이다. 제석(帝釋)의 제(帝)는 인드라(indra)의 의역이고, 석(釋)은 사크라(sákra)의 음역이다.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는 하늘의 임금이다. 제석(帝釋), 제천석(帝天釋)이라고도 한다. 아래의 번역에서 모두 제석천으로 통일하였다.

68) 三十三天: 불교의 우주관으로 욕계(欲界) 육천(六天)의 두 번째인 도리천(忉利天)을 말한다. ‘도리’는 33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trāyastriṃśa의 음역이며 이는 三十三으로 의역할 수 있다. 제석천을 중심으로 4방에 각기 8천이 있는데 이 32천에 제석천을 더하면 33천이 된다.

69) 出世: 세속의 번뇌를 떠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름을 말한다.

70) 嫔女: 심부름하는 여인 또는 궁녀를 말한다.

71) 攝心: 마음을 가다듬어 흩어지지 않게 하다.

72) 末後: 최후, 나중.

을 쓰고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기이했다. 그 천인이 대왕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나는 선지식이 아니다. 나는 제석천(帝釋天)으로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주인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시험하였는데 과연 출세(出世)의 뜻과 해탈(解脫)의 마음이 있구나. 장차 반드시 보리를 증득하고 중생을 구제할 것이니라.” 그러고는 한 줄기 금빛으로 변하더니 사라졌다. 임금께서 돌아보니 황후와 태자가 모두 전탑 앞에 있는데 단정한 모습이 예전과 같았다. 임금은 바로 조회를 열어서 태자를 임금으로 책립하시고는 문무의 백관을 비롯하여 구경(九卿)과 사상(四相)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하고 후궁, 비빈, 궁녀들을 버리고 곧바로 백운산(白雲山)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풀을 엮어 암자를 짓고서 신체를 단련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도를 닦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앓은 채로 돌아가셨다.

2.3 第四地

第四地

제4지

昔日, 如來在金光國, 爲太子, 號摩訶薩埵.⁷³⁾ 弟, 名調達.⁷⁴⁾ 太子不統⁷⁵⁾王位, 專務修行, 棄了皇宮快樂, 直往仙花山中, 結草爲庵修行. 朝看青山雲澹澹,⁷⁶⁾ 夜聽溪澗水潺潺,⁷⁷⁾ 看經庵畔, 自有野鶴⁷⁸⁾花, 談教庵中, 青猿獻果. 忽一日, 庵中正坐, 有一白虎, 直至庵前, 口作人言, 對太子說: “我在山中, 多日無食, 飢餒甚飢.

73) 摩訶薩埵: 산스크리트어 mahā-sattva의 음역으로 위대한 존재 · 중생 · 사람을 의미하며, 보살(菩薩)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로 쓰인다. 준말로 마하살(摩訶薩)이라고도 한다.

74) 調達: 백반왕(白飯王)의 맏아들로 아난(阿難)의 형이며 여래(如來)의 사촌 동생이다.

75) 統: ‘統’의 이체자이다. 여기에서는 ‘悅’의 통가자로 쓰여 ‘사랑하다’, ‘좋아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76) 澹澹: 넘실거리다. 고요하다.

77) 潺潺: 졸졸, 물 흐르는 소리.

78) 鶴: ‘衛’의 이체자로, ‘머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久聞太子, 修行布施, 濟度衆生, 特來教化. 太子身肉充飢, 未知肯否?” 太子言: “善哉! 善哉! 情願捨施.”⁷⁹⁾

옛날에 부처님께서 금광국(金光國)에 계시실 때 태자가 되셨는데, ‘마하살타’로 불리었다. 아우는 이름이 조달(調達)이었다. 태자는 왕위를 좋아하지 않았고 수행에만 전념하였으며, 황궁의 쾌락을 버리고 바로 선화산 속으로 들어가 암자를 짓고 수행을 하였다. 아침에는 청산에 구름이 넘실거리는 것이 보이고, 밤에는 시내물이 졸졸 흐르는 것이 들렸다. 경을 읽는 암자 가에는 절로 들어서 노니는 학이 꽃을 머금고 있고, 법을 설명하는 암자 안에는 원숭이가 과일을 진헌(進獻)한다. 어느 날 태자가 암자에 정좌(正坐)하고 있는데 범 한 마리가 암자 앞으로 오더니 입으로 사람의 말을 하며 태자에게 말했다. “나는 산중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여 심히 굶주리고 있소. 태자께서는 보시를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하며 특별히 교화하러 오셨다고 오래도록 들어왔습니다. 태자의 육신으로 저의 굶주림을 채워주심이 어떠하신가요?” 그러자 태자가 말했다. “좋다! 좋다! 내 진심으로 보시(布施)하겠습니다.”

卽時白虎, 張牙露爪, 展尾哮吼,⁸⁰⁾ 振動山林. 太子全然不改, 面容不變, 又告太子: “果肯, 全身布施, 上此高山, 投身而下, 尸首⁸¹⁾臨地, 待我食之.” 卽時太子, 上此高山, 放身半空,⁸²⁾ 一朵黃雲, 托於在地. 嵐風⁸³⁾颯颯,⁸⁴⁾ 瑞氣⁸⁵⁾騰騰,⁸⁶⁾ 大地六種振動.⁸⁷⁾ 但見空中, 有一仙人, 叫聲言: “太子不須自撲, 臺⁸⁸⁾頭遙望.” 見一

79) 捨施: 시주(施主)하다. 보시하다. 즉 재물이나 인력으로 사원을 돕는 일 또는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말한다. 시사(施舍) 또는 희사(喜捨)라고도 한다.

80) 哮吼: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다.

81) 尸首: 시체.

82) 半空: 공중.

83) 嵐風: 산바람.

84) 颯颯: 췌췌. 바람소리.

85) 瑞氣: 상서로운 기운.

86) 騰騰: 자욱이 피어오르다.

87) 六種振動: 대지가 진동할 때의 여섯 가지 형상을 말한다. 석가모니가 탄생하거나 여래가 출현할 때에 대지가 動·起·涌·覺(擎)·震·吼 등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고 한다.

88) 臺: ‘臺’와 통가자로 쓰여 ‘들다’를 나타낸다.

人結束⁸⁹⁾異常, 有若天人貌相. 太子問言: “你是何方聖者?⁹⁰⁾” 仙人答曰: “吾乃忉利天主.⁹¹⁾ 玉皇聖帝, 特來試汝, 果有堅固, 辦道⁹²⁾之心, 當來必證無上菩提,⁹³⁾ 廣度衆生.” 道罷, 垂玉毫⁹⁴⁾而化去. 太子轉生⁹⁵⁾欣歡, 轉加⁹⁶⁾精進, 道果成熟, 一日坐化而去.

그러자 백호는 즉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꼬리를 휘두르며 포효를 하었는데 그 소리에 온 산림이 진동하였다. 그런데도 태자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낮빛도 변치 않으셨다. 백호가 태자에게 일러 말하였다. “진실로 온몸을 다 바쳐 기꺼이 보시하시고자 한다면 여기 높은 산 위로 올라 몸을 아래로 떨어뜨려 시신이 땅에 떨어질 때에 제가 먹겠습니다.” 그 즉시 태자는 높은 산에 올라 몸을 공중으로 던졌는데 황색 구름 한 조각이 태자를 받쳐서 땅에 내려놓았다. 산바람이 씹씹 불고 상서로운 기운이 마구 피어올랐으며 대지는 육종(六種)으로 진동하였다. 다만 공중에 한 선인(仙人)이 보였는데 선인이 태자에게 외치며 말하였다. “태자는 스스로 몸을 던질 필요가 없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시오.” 그러자 옷차림이 기이한 사람이 한 명 보였는데, 마치 천인(天人)의 모습과 같았다. 태자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곳의 성자(聖者)이십니까?” 선인이 답하였다. “나는 하늘에 있는 제석(帝釋)이오. 옥황성제(玉皇聖帝)께서 나를 보내 특별히 그대를 시험한 것이었는데 과연 굳세고 단단한 수행의 마음을 가졌으니 장차 반드시 무상보리를 증득하고 중생을 구제할 것이오.” 말을 마치고는 옥호(玉毫)를 드리우고는 사라져버렸다. 태자는 매우 기뻐 더욱 정진하였

89) 結束: 옷차림.

90) 聖者: 모든 번뇌를 버리고 정리를 깨달은 사람.

91) 忉利天主: ‘忉利天’은 육욕천(六欲天)의 둘째 하늘. 수미산 꼭대기에 있으며, 가운데에 제석천(帝釋天)이 있고 그 사방에 하늘 사람들이 거처하는 여덟 개씩의 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忉利天主는 곧 ‘제석’이다.

92) 辦道: 불도를 일심으로 수행하는 것.

93) 菩提: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타 정각(佛陀正覺)의 지혜를 말한다. 올바른 깨달음으로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깨닫는 부처의 지혜이다. 산스크리트어 ‘Bodhi’의 음역어이다.

94) 玉毫: 부처의 두 눈썹 사이의 흰 털.

95) 轉生: 정도부사 ‘轉’에 근대한어 시기의 부사 접미사 ‘生’이 결합된 형식. ‘매우’의 의미.

96) 轉加: 근대한어 시기의 대표적인 정도부사. 두 개의 同義의 부사 ‘轉’과 ‘加’가 결합된 동의 병렬부사이다.

고, 끝내 도과(道果)를 이루시고는 어느 날 아침 앉아서 돌아가셨다.

2.4 第五地

第五地

제5지

昔日, 如來爲忍辱仙人, 在捨衛國, 西有一山, 名玉隱山. 於中以草爲舍. 飢飡⁹⁷⁾山果. 渴飲澗泉. 息心⁹⁸⁾達本,⁹⁹⁾ 形同槁木,¹⁰⁰⁾ 德重孤高, 感得青嶂¹⁰¹⁾黃猿獻果, 碧岩瑞鳥啣花,¹⁰²⁾ 龍吟霧起, 虎嘯風生. 一日, 舍衛國歌利王, 聞知仙人有道, 御駕親臨, 至於山下. 先令使臣預馬, 賫持¹⁰³⁾香信¹⁰⁴⁾鮮果, 直造¹⁰⁵⁾庵前, 只見仙人, 容顏端正, 有若天人. 使臣報曰: “國王至此, 理合¹⁰⁶⁾接待.” 再三報說, 仙人全然不動, 亦無應答.

옛날에 여래께서 인욕선인(忍辱仙人)이 되어 사위국(捨衛國)에 계셨다. 서쪽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옥은산(玉隱山)이었다. 그 안에서 풀로 암자를 짓고서는 배가 고프면 산의 과일을 먹고 목이 마르면 시냇물과 샘물을 마셨다. 마음을 편히 하며 근본을 깨달았으니 몸은 고목(枯木)과 같았지만 덕은 두텁고 고고(孤高)하였다. 이에 푸른 산봉우리의 원숭이들을 감동시켜 과일을

97) 飢飡: 먹다(=餐).

98) 息心: 마음을 편히 하다.

99) 達本: 근본을 깨닫다.

100) 槁木: 시들어 마른 나무.

101) 嶂: 우뚝 솟은 산봉우리.

102) “感得青嶂黃猿獻果, 碧岩瑞鳥啣花”는 ‘得’를 구조조사로 하는 전형적인 상태보어 문장이다. 여기서 ‘感’이 동사이고 그 뒤의 ‘得’은 구조조사이며 “青嶂黃猿獻果, 碧岩瑞鳥啣花”는 보어이다.

103) 賫持: 가져다 선물로 주다.

104) 香信: 표고버섯.

105) 造: 여기에서는 ‘가다’, ‘이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06) 理合: 마땅히해야 한다.

갖다 바치게 하였고, 푸른 바위의 상서로운 새를 감동시켜 꽃을 머금게 하였다. 용이 읊조리니 안개가 피어올랐고 호랑이가 포효하니 바람이 일었다. 하루는 사위국의 가리왕(歌利王)이 이 선인(仙人)에게 도가 있음을 듣고 여가(御駕)를 타고 친히 왕립하여 산 아래에 이르렀다. 먼저 사신에게 명하여 말을 준비하고 표고버섯과 신선한 과일을 가져다 선물로 주게 하였다. 곧장 암자 앞으로 갔더니 선인(仙人)만이 보였는데 용모가 단정한 것이 천인(天人)과 같았다. 사신이 말했다. “임금께서 도착하셨으니 나와서 인사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알렸으나 선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며 응답도 없었다.

回臣說, 此仙人如此如此, 大王聞之大怒, 御駕庵前. 仙人亦不離座. 大王問: “仙人汝是何人也?” 仙人曰: “吾是仙人, 山中自在修行.” 王曰: “修何法旨?”¹⁰⁷⁾ 仙人答曰: “修忍辱法.” 王曰: “何爲忍辱?” 答曰: “遇惡而不報, 報過而不悔, 故名忍辱.” 卽時, 大王令僧子,¹⁰⁸⁾ 持利刀, 割其仙人鼻及兩耳手足, 去其七處. 問曰: “能忍否?” 答曰: “能忍.” 王曰: “汝心中不忍, 口說難憑.” 尙時, 仙人默而思之, 將何爲驗, 令王生信, 遙望靈空,¹⁰⁹⁾ 發弘¹¹⁰⁾ 誓言: “願我修忍辱法, 眞案不虛者, 身支七處, 還復如故著.”¹¹¹⁾

돌아와서 신하가 이 선인이 이러이러하였다고 말하자 임금은 그것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에 직접 여가를 타고 암자 앞으로 갔는데 선인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임금이 물었다. “선인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이에 선인은 “나는 선인ियो. 산속에서 자유롭게 수행을 하고 있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어떠한 불법을 수행하시오”라고 물었고, 선인은 “인욕법(忍辱法)을 수행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임금이 “인욕(忍辱)이란 무엇

107) 法旨: ‘불법의 요지’나 ‘불법의 참뜻’을 말한다.

108) 僧子: ‘劊子’의 誤記로 보인다. ‘劊子’는 ‘망나니’를 일컫는다.

109) 靈空: 즉, ‘하늘’.

110) 弘: 낙은본에는 ‘弓+几’로 된 글자이나 찾을 수 없는 글자이기에 안진호 번역본을 따라 ‘弘’으로 표기한다.

111) 著: 이는 대표적인 근대한어의 어기조사로, ‘명령’을 나타낸다. 현대중국어의 ‘吧’에 상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입니까?”라고 묻자, 선인은 “악한 일을 당하여도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과보를 받아도 후회를 하지 않기에 인욕(忍辱)이라고 말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망나니에게 명하여 날카로운 칼로 그의 코와 두 뒷, 두 손, 두 발 모두 일곱 군데를 자르게 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이래도 참을 수 있소?” 그러자 “참을 수 있소.”라고 답을 했다. 그때 임금은 말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참지 못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니 믿을 수가 없소.” 그때 선인은 묵묵히 무엇을 증험으로 삼아 임금을 믿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하늘을 멀리 바라보더니 크게 맹서를 하며 말했다. “바라옵건대 제가 인욕법을 닦고 있는 것이 진실되고 거짓이 아니라면, 몸의 일곱 군데가 다시 전처럼 복원되게 해 주시옵소서.”

發誓願已, 只見, 烏雲¹¹²⁾霧, 雷轟¹¹³⁾電掣¹¹⁴⁾大雨¹¹⁵⁾靄沱. 人馬離散, 無處潛身. 半晌¹¹⁶⁾時間, 雲收電散, 卻見仙人, 在庵中, 端然¹¹⁷⁾具足, 身體髮膚¹¹⁸⁾平復¹¹⁹⁾如舊. 大王見已¹²⁰⁾讚言: “善哉! 乃眞忍辱也.” 卽於仙人面前, 五體投地, 告仙人曰: “吾今發不善心, 壞其聖體, 造大罪業. 願求懺悔, 容我悔過.” 仙人曰: “我在山中, 修練身心, 行忍辱法, 爲求佛果.¹²¹⁾ 當來, 必證菩提, 教化衆生, 歸依三寶, 不與一切衆生爲怨. 若與衆生結怨, 計恨相讎, 不名忍辱.”

112) 霧: 어둡다.

113) 雷轟: 천둥이 떨어지다.

114) 電掣: 번개가 치다.

115) 靄沱: ‘滂沱’와 같다. 비가 짹짹 쏟아짐.

116) 半晌: 한참 동안, 또는 잠깐 동안

117) 端然: 단정한 모양.

118) 髮膚: 머리털과 피부.

119) 平復: 건강 등을 회복하였음을 말한다.

120) 已: 여기에 已는 이른바 ‘완성동사’로 동사 뒤에 쓰여 동작이 이루어짐 또는 끝남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종류의 已는 대략 위진남북조 시기에 출현하여 근대한어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점차 동상보어 ‘却’, ‘得’ 그리고 이후의 동태조사 ‘了’ 등의 출현 등의 이유로 점차 소멸한다. 본문의 ‘見已’는 ‘보는 것이 다 끝남 혹은 다 이루어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대중국어의 ‘看好’ 또는 ‘看完’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121) 佛果: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부처님의 깨진 지혜를 말한다.

서원이 끝나자 먹구름과 검은 안개가 끼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비가 짹짹 쏟아졌다. 인마(人馬)가 이리저리 흩어지고 몸을 숨길 데가 없었다. 얼마 후에 구름이 걷히고 번개가 멈추더니, 선인이 암자 안에서 신체발부(身體髮膚)를 모두 단정하게 갖추어 예전과 같았다. 임금이 이를 보고 “훌륭하도다! 진정한 인욕선이로다.”라고 칭찬하여 말하고는 선인 면전에서 온 몸을 땅에 엎드리고 말했다. “제가 오늘 불선(不善)의 마음을 내어 성스러운 몸을 훼손하였으니 이는 큰 죄업을 지은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참회를 구하니 제가 잘못을 뉘우치게끔 용서해주시옵소서!” 이에 선인이 말했다. “내가 산중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인욕의 법을 행하는 것은 불과를 구하기 위함이다. 장차 반드시 보리를 증득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삼보에 귀의하여 모든 중생과 원한을 맺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생과 원한을 맺어 앙심을 품고 원수가 된다면 이를 ‘인욕’이라 이르지 못할 것이다.”

卽時，衆生大王聞說，方知佛法浩大，法力寬洪，能免刀兵之難，¹²²⁾ 能脫輪回之苦。卽時，御筆親書，敕賜號曰‘普濟仙人’，‘願大仙當來，得一切智，度脫¹²³⁾我等。’仙人與大王，授記曰：“願我當來，得成佛果，先度汝等，爲徒受法。”大王辭別仙人，回朝不戀皇宮富貴，太子爲君，退位直往，向玉隱山庵，拜普濟大仙爲師，巾瓶¹²⁴⁾侍立，爲求妙法，久經濤汰，¹²⁵⁾ 方得妙訣。¹²⁶⁾ 嗟嘆¹²⁷⁾ 光陰易邁，¹²⁸⁾ 生死難逃，一日，隨普濟仙人坐化。按經中說，昔日，普濟大仙人者，今釋迦佛是也。舍衛國歌利王者，卽波羅奈國初受四諦法輪，¹²⁹⁾ 嬌陳如¹³⁰⁾ 比丘是也。

122) 刀兵之難: 전쟁 등의 난.

123) 度脫: 중생을 제도하여 번뇌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함.

124) 巾瓶: 淨巾淨瓶의 줄임말로 손을 닦는 깨끗한 천과 물을 넣는 깨끗한 병을 말한다.

125) 濤汰: ‘淘汰’와 같은 뜻으로 ‘잡된 것을 없애다’의 의미이다.

126) 妙訣: 영묘한 비법이나 비결.

127) 嗟嘆: 탄식하다.

128) 光陰易邁: 시간(光陰)이 쉽게 지나가다.

129) 四諦法輪: 제(諦:satya)는 진리를 의미한다. 사제란 4개의 진리를 의미하는 불교의 교의를 말한다. 성스러운 진리라는 의미에서 사성제(四聖諦)라고도 한다. 미혹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의 인(因)·과(果)를 설명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조직으로 고제(苦諦:dubkha)·집제(集諦:samudaya)·멸제(滅諦:nirodha)·도제(道諦:marga)의 네

바로 그때 중생의 임금인 이 말을 듣고서 비로소 불법이 크고 법력이 넓어 능히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고 또 능히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어필로 친히 글을 써서 ‘보제선인(普濟仙人)’이란 이름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원컨대 선인께서 장래에 일체의 지혜를 얻어 우리를 도탈(度脫)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선인이 임금에게 수기(授記)를 주며 말하기를 “원컨대 내가 장래에 불과를 이루게 되면 먼저 그대들을 구제하여 제자로 삼고 법을 내려주겠다.”고 하였다. 임금은 선인과 이별하고 궁으로 돌아와서는 황궁의 부귀에 미련을 두지 않고 태자를 임금에 앉히고 자리에서 물러나 곧장 옥은산(玉隱山)의 암자로 향했다. 그곳에서 보제대선(普濟大仙)을 스승으로 받들어 수건과 물병을 들고 모시며 묘법을 구하였는데 오래도록 잡된 것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영묘한 비결을 얻을 수 있었다. 개탄스럽게도 세월은 쉽게 흘러 생사(生死)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 어느 날 보제선사를 따라 앉아서 돌아가셨다. 불경 중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날의 보제대선인은 지금의 석가 모니이시고, 사위국의 가리왕(歌利王)은 곧 바라나국(波羅奈國)에서 처음으로 사제법륜(四諦法輪)의 가르침을 받으신 교진여(矯陳如) 비구이시다.

2.5 第六地

第六地

제6지

昔日, 如來在波羅國太子, 名善友, 心行平等, 道德顯顯,¹³¹⁾ 唯好布施, 利濟貧

가지 진리를 말한다. 석가가 녹야원(鹿野苑)에서 다섯 비구(比丘)에게 설한 최초의 설법〔初轉法輪〕내용으로 전해진다.

- 130) 矯陳如: 원문의 矯陳如是 矯陳如의 誤記이다. 교진여(橋陳如)는 아야교진여(阿若橋陳如)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아야(阿若)는 이름이고 교진여(橋陳如)는 성(姓)으로 산스크리트어 ajñāta-kaundinya의 음역이다. 녹야원(鹿野苑)에서 고행하고 있었는데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에게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

窮, 歸依三寶. 其弟名惡友, 慳貧嫉妒, 好殺生. 善友一日, 因出四門遊戲, 見生老病死之苦, 又知時年飢饉, 五穀不登,¹³²⁾ 萬民疾苦,¹³³⁾ 餓死者多, 父子兄弟不能相濟, 誠可愍哉. 遂奏父皇,¹³⁴⁾ 允奏敕令, 善友任便,¹³⁵⁾ 打開廩庫¹³⁶⁾ 帑藏,¹³⁷⁾ 賑濟萬民, 免遭飢苦. 年載¹³⁸⁾ 之間, 庫藏皆虛. 善友思量, 布施未足, 不滿願心, 焚香望空, 禱告: “三寶上聖,¹³⁹⁾ 願賜如意寶珠,¹⁴⁰⁾ 布施萬足, 可滿心願.”

옛날 여러께서 바라국(波羅國)의 태자이셨을 때 이름이 선우(善友)였다. 마음으로 평등(平等)을 행하시고 도덕이 엄숙하셨으며 보시(報施)를 좋아하시고 빈궁한 이를 구제하시고 삼보에 귀의하셨다. 아우의 이름은 악우(惡友)인데, 인색하고 탐욕스러우며 질투하고 살생을 즐겼다. 선우가 어느 하루 사문(四門)을 나가 놀다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았고, 또 그해 기근에 오곡이 익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이 절고(疾苦)에 시달려 굶어죽는 자가 많았지만 부자와 형제 사이에도 서로 구제할 도리가 없어 참으로 가엾을 따름이었다. 이에 부황께 주청하였더니 부황께서 윤허하여 칙령을 내리시자 선우는 편리한대로 나라의 곳간과 금고를 열어 백성들을 진휼(賑恤)하여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런데 한 해 사이에 곳간이 모두 텅 비고 말았다. 선우가 생각하기에 보시가 부족하면 발원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여겨 향을 사르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여 말하길 “삼보(三寶)의 상성(上聖)께서는 부디 여의보주(如意寶珠)를 하사하시어 보시가 충족되고 소망을 채워주소서.”라고 하였다.

131) 顯顯: 엄숙하고 공경스러운 모양.

132) 五穀不登: 오곡이 여물지 않다.

133) 疾苦: 괴로워하다. 고통스러워하다.

134) 父皇: 본 지(地)에서 동일한 인물을 부황과 부왕을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다. 본고는 원문에 근거하여 부황과 부왕을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135) 任便: 편리한대로.

136) 廩庫: 廩은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곡물 창고를 말한다.

137) 帑藏: 나라의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 국고.

138) 年載: 해, 햇수. 여기에서는 대략 한 해의 시간을 의미한다.

139) 上聖: 여기에서는 천신(天神)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140) 如意寶珠: 산스크리트어 cintāmaṇi의 역어로 원하는 보물이나 의복, 음식 등을 가져다 주고 병고를 없애 준다는 상상의 보주(寶珠)이다.

忽感天帝釋，差一神仙下界，直至面前。善友問曰：“是何神仙？”答曰：“海門大仙，久聞太子，布施未週，濟貧未足，觀奉天帝釋命，助引太子，同往東洋大海娑羯羅¹⁴¹⁾龍王宮，求此聚寶明珠，¹⁴²⁾回朝建置道場，供養三寶諸天仙聖，此則萬物盡從寶中出，堪濟飢貧，可以施足，得滿心願。”卽時太子，歡喜奏上，父王大允。弟惡友亦奏父王，“同兄作伴東海，求取明珠。”兄弟二人，隨海門大仙，同舡入於大海，中間忽遭風浪，烏雲四暗，舟舡¹⁴³⁾險危，惡友懼怕，速生退回之心，乞告大仙，送惡友至海岸，於竹林中停止。

그러자 홀연 제석천(帝釋天)을 감동시켜 한 신선을 아래로 내려 보내 그들의 면전에 이르게 하였다. 선우가 “무슨 신선이시오?”라고 물었다. 신선이 답했다. “나는 해문대선(海門大仙)입니다. 태자의 보시가 두루 미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이에 삼가 제석천의 명을 받들어 태자를 도와서 함께 동양(東洋) 큰 바다의 사갈라(娑羯羅) 용왕의 궁으로 가 취보명주(聚寶明珠)를 구해 조정에 돌아와 도량을 건설하고 삼보(三寶)와 제천선성(諸天仙聖)을 공양한다면 온갖 사물이 보주(寶珠)로부터 나와 굶주림과 가난을 구제할 수 있고 보시도 만족되어 바라는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태자는 매우 기뻐하며 부황께 주청하였고 부황은 쾌히 승낙하셨다. 아우인 악우(惡友)도 부황께 주청하여 “형과 함께 동해에 가서 명주(明珠)를 구해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형제 둘은 해문대선(海門大仙)을 따라 함께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들어갔다. 중간에 갑자기 풍랑을 만났는데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타던 배는 위험하게 되었다. 그러자 악우는 두려워 되돌아가려는 마음이 갑자기 나서 대선에게 애걸하였다. 대선은 악우를 해안으로 보내 대숲에서 머물게 하였다.

141) 娑羯羅: 불법을 수호하는 여덟 용왕 중 하나. 곧 난타(難陀), 발난타(跋難陀), 사갈라(娑羯羅), 화수길(和修吉), 덕차가(德叉迦), 아나발다(阿那婆達多), 마나사(摩那斯), 우발라(優鉢羅)의 8용왕 중 하나이다.

142) 聚寶明珠: 보배가 가득한 밝은 구슬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된 如意寶珠를 가리킨다.

143) 舟舡: 배

其善友同海門大仙, 徑詣娑羯羅龍王宮. 門外佇伺,¹⁴⁴⁾ 守門判官, 報龍王曰: “門外有一神仙, 共人王太子到此.” 龍王聞聽, 出宮迎接, 直至宮中, 安位中間, 恭詢問曰: “神仙何往?” 答曰: “吾是海門大仙, 奉天帝釋敕. 此是波羅國人王太子, 名善友, 其性真淳, 唯好布施, 爲求佛果, 賑恤國民, 帑藏匱乏,¹⁴⁵⁾ 不滿心願. 特來求乞明珠, 能出萬物, 給濟衆生, 能捨否?” 龍王答曰: “不違天命, 並太子誠心, 願捨寶珠.” 遂將出寶明珠, 分付大仙及太子, 送出龍宮. 其海門大仙, 與太子甚喜, 將此海寶回還. 途中海門大仙, 分付太子, “若有難時, 操琴¹⁴⁶⁾而度日.” 化空而去.

선우는 해문대선과 함께 곧장 사갈라(娑羯羅) 용왕의 궁에 도달하였다. 문밖에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자 수문관이 용왕님에게 아뢰길 “문밖에 한 신선이 인왕 태자와 함께 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용왕이 이 말을 듣고서 궁을 나가 영접하더니 이들을 바로 궁 안까지 이르게 하고서 가운데로 자리를 앉히고 공손히 물었다. “신선께서는 어찌 오셨습니까?” 신선이 대답했다. “저는 해문대선으로 천제석의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라국(波羅國) 임금의 태자로 이름은 선우입니다. 품성이 진실하고 순박하며 보시(布施)를 좋아하고 불과(佛果)를 구하러 백성들을 진휼(賑恤)하였는데 곳간의 물건이 다하여 바라는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히 명주(明珠)를 구하러 왔습니다. 명주(明珠)는 만물(萬物)을 생성할 수 있으니 그것을 베풀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주(明珠)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용왕이 답했다. “하늘의 명(命)과 태자의 성심(誠心)을 거스를 수가 없다. 내 기꺼이 보주(寶珠)를 내어 주겠소.” 용왕이 보배로운 명주(明珠)를 내어 놓으며 대선(大仙)과 태자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용궁 밖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해문대선과 태자는 매우 기뻐하며 그 바다의 보배를 들고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해문대선이 태자에게 분부하였다. “만약 어려운 때가 있으면 거문고나 타면서 날을 보내시오.”라고 하였다. 대선은 그렇게 허공으로 올라 가버렸다.

144) 佇伺: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다.

145) 匱乏: 다하여 없어지다.

146) 操琴: 거문고를 타다.

太子獨駕孤舟, 觀其大海, 明月爲鄰, 清風作伴. 至于海岸, 苦竹林中, 見弟惡友, 再次伺候, 問兄曰: “求得珠否?” 兄以直言告之, “得了.” 惡友看視, 寶珠罕有. 兄弟二人, 在於林中同宿, 善友困暝¹⁴⁷⁾甚重, 被¹⁴⁸⁾惡友心生毒害, 用銚竹¹⁴⁹⁾刺, 壞其兩目, 欲令其死, 奪取寶珠回國, 呈獻父王, 卻言: “我兄被遭風波, 喪命海中, 海門大仙, 昇空而去, 我向海龍王宮, 求得寶珠, 安樂回來.” 父王聞語, “苦哉! 苦哉! 可惜, 仁德之子, 喪命海中.” 卽召高僧, 建置道場, 七晝夜, 超度¹⁵⁰⁾幽魂.

태자가 홀로 고주(孤舟)를 몰고 가다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니 밝은 달은 이웃이 되어주고 맑은 바람은 벗이 되어주었다. 해안가에 이르자 고죽(苦竹) 숲 가운데 아우 악우가 보였다. 악우는 재차 형에게 인사하고는 물었다. “명주(明珠)를 구했소?” 형은 사실대로 “구했다.”라고 말했다. 악우가 그것을 보니 과연 세상에 드문 보주(寶珠)였다. 형제 둘은 숲속에서 함께 묵었는데 선우는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었다. 악우는 해치려는 생각이 마음에 일어 날카로운 대나무로 찢러 형의 두 눈을 망가뜨려 형을 죽게 하였다. 보주(寶珠)를 빼앗아 귀국하여 부황께 바치고는 도리어 이렇게 말했다. “형님은 풍랑을 만나 바다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해문대선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해룡왕궁에 가서 이 보주(寶珠)를 얻고 안락하게 돌아왔습니다.” 부황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고약하도다! 고약하도다! 참으로 애석하구나. 어질고 덕망 있는 아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다니!” 이에 고승(高僧)을 청하여 도량을 설치하고 일곱 낮과 밤으로 영혼을 제도하였다.

尙時善友太子, 在竹林中, 苦痛難忍. 捫抹¹⁵¹⁾而無路, 感得林中土地神化凡人,

147) 困暝: 피곤하여 눈을 감다.

148) 被: 본 문장은 근대한어 시기 존재했다가 현대한어에서 사라진 이른바 영주어 피동문(零主語被動句, 약칭 零被句)에 해당된다. 영주어 피동문은 형식상의 주어는 출현하지 않으면서 피동표지는 문두에 출현하고 그 뒤에 주술 형식의 절이 후속되는 문형을 말한다. 蔣紹愚(2005:242)는 이러한 문형의 의미상 특징은 화자 스스로에게 ‘불행(不幸)’ 혹은 ‘예상하지 못함(沒有意料到)’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49) 銚竹: 날카로운 대나무.

150) 超度: 불교나 도교에서 사자(死者)의 영혼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함을 말한다.

151) 捫抹: 만지다. 쓰다듬다.

引出林外. 恹惶¹⁵²⁾回程. 沿路教化. 途中忽見一仙客, 問曰: “無目者, 何方人民?” 善友向前, 曲身答曰: “吾是善友太子, 東海求寶回途, 被弟惡友, 刺壞兩目.” 仙客觀見, 容貌端正, 非常人也. 問曰: “能拊琴¹⁵³⁾否?” 答曰: “能.” 其仙客, 將一琴, 付太子. 隨路彈琴, 念佛度日.

그때 선우태자는 대나무 숲에 있었는데 고통은 매우 참기 어려웠다. 앞을 더듬어도 길이 보이지 않았다. 숲 속의 토지신(土地神)을 감동시켜 범인(凡人)으로 화(化)하여 그를 숲 밖으로 인도하였다. 허둥지둥 돌아가는 여정에도 태자는 길을 따라가며 중생을 교화하였다. 도중에 홀연 한 선객(仙客)을 만났는데 그가 물었다. “눈 없는 자여,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선우가 앞으로 나아가 몸을 숙이며 답했다. “저는 선우태자입니다. 동해에서 보물을 구해 돌아가는 길에 아우 악우에게 두 눈을 찢려 망가졌습니다.” 선객이 보아하니 용모가 단정한 것이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에 물었다. “그대는 거문고를 탈 줄 아는가?” 그러자 태자는 “할 줄 압니다.”라고 답하였고 선객은 거문고 하나를 태자에게 건넸다. 태자는 길을 따라 가면서 거문고를 탔고 그렇게 염불하면서 나날을 보냈다.

遇緣而到於本國河邊, 正是五月端午節. 令人民聚會, 競鬪龍舟. 是時, 宮娥¹⁵⁴⁾嫖女, 太子夫人, 都來看鬪龍舟. 河岸置一樓, 俱登樓上, 時善友妃忽聽, 樓下琴聲, 音韻幽雅,¹⁵⁵⁾ 恰似儲君¹⁵⁶⁾在日, 所彈琴韻一般,¹⁵⁷⁾ 令人下樓, 引上樓來試看. 善友樓上, 撫¹⁵⁸⁾琴中間,¹⁵⁹⁾ 其夫人認得¹⁶⁰⁾是太子, 拔淚¹⁶¹⁾而問曰: “因何失其

152) 恹惶: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다.

153) 拊琴: 거문고를 타다. 拊는 ‘악기를 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54) 宮娥: 궁녀, 궁인.

155) 幽雅: 그윽하고 품위 있다.

156) 儲君: 왕위를 이을 왕자, 태자.

157) 一般: 현대중국어의 ‘一樣’와 같다. ‘같다’의 의미이다.

158) 撫: ‘撫’의 간체자 형식인데, 아마도 이체자로 보인다.

159) 中間: ……하는 사이에, ……하는 과정에.

160) 得: 이것은 원래 ‘이루어짐’을 나타내던 동상보어였고 동사인 ‘認’ 뒤에 쓰여 현대한어의 ‘到나 着’의 기능을 했다. 그러다가 ‘認’과 하나의 단어로 고정되어, ‘認得’은 이 시기에 사실상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즉 ‘알아보다’의 의미이다.

兩目? 汝弟惡友, 回朝向告父王言說: ‘你在海上, 遭波浪而喪命於彼’. 僧道預會, 超度與汝, 安得存在, 有命回來?” 太子對妻說是, 泛海取寶, 一回至苦竹杷, 遇弟惡友, 用竹簽¹⁶²⁾刺我兩目, 奪取寶珠, 因此回國. 我在林中. 蒙土地神, 導引出杷, 路逢一客人, 見我無目, 付我一琴, 沿途撫琴而過日. 不覺遇緣, 到於本處. 夫人聞語, 哽咽¹⁶³⁾悶絕,¹⁶⁴⁾ 良久乃甦[蘇].

마침 인연이 되어 본국의 강변에 이르게 되었는데 때는 바로 오월 단오절이었다. 사람들을 모아 용주(龍舟) 경기를 하였고, 이때 궁녀와 채녀, 태자부인이 모두 용주 경기를 보러 왔다. 강가에 누각을 하나 세우고 모두 누각 위로 올랐는데, 그때 선우의 부인이 갑자기 누각 아래에서 나는 거문고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그윽한 것이 마치 태자가 생전에 타던 거문고 소리와 같아서 사람을 시켜 누각 아래로 내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여 보려고 했다. 선우가 누각 위로 올라와 거문고를 타는 중에 부인은 그가 태자인 것을 알아보고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어찌하여 두 눈을 잃으셨소? 당신 아우 악우가 조정에 돌아와 부황께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는 승려와 도사를 청해 법회를 열고 당신을 위해 천도를 하였는데 어떻게 살아 계셔서 이렇게 목숨을 건져 돌아오셨소이까?” 태자가 부인에게 말하길 “내가 바다에서 보물을 얻어 돌아오는 길에 고죽(苦竹) 숲에 이르러 아우 악우를 만났는데 그가 대나무 꼬챙이로 내 두 눈을 찌르고 보물을 탈취하여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요. 나는 숲속에 있었는데 토지신이 인도해 주시어 숲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길에서 한 과객을 만났는데 내가 눈이 없는 것을 보더니 나에게 거문고를 하나 주고 길을 따라가며 거문고를 타며 날을 보내라고 했소. 그러다가 문득 인연이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구려.” 부인이 이 말을 듣고는 흐느껴 울다가 너무 기가 막혀 까무러쳤다가 한참 뒤에 다시 깨어났다.

161) 拭淚: 눈물을 닦다.

162) 簽: 꼬챙이.

163) 哽咽: 흐느껴 울다.

164) 悶絕: 너무 기가 막혀 까무러치다.

即時, 宮娥姝女, 抱住太子, 痛苦一場, 振動璫樓. 報知父王國母, 宣至殿前. 父子恩情, 重於丘嶽,¹⁶⁵⁾ 問啓太子採寶一段因由, 不可勝言. 對答已畢, 召此醫官, 與太子治眼, 百藥不効.¹⁶⁶⁾ 尙時, 父皇並國太夫人, 焚香望空, 祈禱三世諸佛,¹⁶⁷⁾ 天仙地喆, 水府靈神,¹⁶⁸⁾ 願我太子採寶一事, 果有眞誠, 願此雙目, 還復如舊. 敕令太子妃, 與太子舐目, 夫人三度以舌舐目, 即時, 兩目還同如舊, 日光明無異. 時惡友聞知, 兄回還存在, 恐父王罪之, 隨卽逃走, 出國顧命而去訖.¹⁶⁹⁾

그때 궁녀와 채녀들이 태자를 끌어안고 한 바탕 통곡을 하였는데 경루(璫樓)를 진동케 하였다. 이를 부황과 국모에게 보고하여 알리니 명을 내려 태자를 궁궐 앞에 이르게 하였다. 부자의 정(情)은 구악(丘嶽)보다도 중한지라 태자에게 보물을 구하러 갔던 연유를 묻는데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대답을 마치자 의관(醫官)을 불러 태자의 눈을 치료하게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때 부황과 국태부인은 향을 사르고 하늘을 우러러 삼세(三世)의 제불(諸佛)과 천선(天仙)의 지철(地喆), 수부(水府)의 신령께 기도를 올렸는데, 태자가 보물을 구하러 갔던 일은 진실로 참된 정성이 있었으니 두 눈을 예전과 같이 회복해 주시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는 태자비에게 명을 내려 태자를 위해 눈을 핥으라 하였다. 태자비가 세 차례 혀로 눈을 핥자 곧 두 눈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 햇빛이 전과 다름없이 밝게 보였다. 그때 악우는 형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황이 벌을 줄까 두려워 곧바로 도망갔다. 나라를 벗어나 목숨만을 살피며 떠나버렸다.

尙時, 太子奏父王, 寶在何處, 父王敕令打開帑藏, 取出如意摩尼寶珠, 付太子.

165) 丘嶽: 구(丘)와 악(嶽) 모두 산을 일컫는 말로 여기에서는 부자간의 정이 산과 같이 무거움을 비유하고 있다.

166) 効: 여기에서는 '效'의 이체자로 쓰였다.

167) 三世諸佛: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에 걸쳐 존재하는 일체(一切)의 모든 부처.

168) 水府靈神: 수부(水府)는 바다 속 용왕의 궁전을 말한다. 수부영신(水府靈神)은 용궁의 신령님의 의미이다.

169) 訖: 완성동사의 일종으로 동사 뒤에 쓰여 그 동사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끝남을 나타낸다. '已', '畢', '罷'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특히 '去' 뒤에 쓰여 '가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짐을 나타내는데, '去訖'은 곧 현대중국어의 '走掉'과 같다.

卽時, 善友太子, 將此寶珠, 置高樓上, 拜請父母並妻, 同在樓上, 焚起寶鼎¹⁷⁰⁾海岸名香, 鳴鐘法鼓, 運動笙簧, 百味珍羞,¹⁷¹⁾ 供養海寶, 叩頭望空, 祈禱現在諸佛菩薩, 應世羅漢,¹⁷²⁾ 三界天仙,¹⁷³⁾ 四府¹⁷⁴⁾靈官,¹⁷⁵⁾ 釋梵四王,¹⁷⁶⁾ 日月星斗, 陽元水喆, 同作證明. “願此如意海寶, 果有靈驗, 救濟衆生.” 卽時, 霞光¹⁷⁷⁾萬彩, 寶蓋懸樓, 種種珍琦, 衣服飲食, 皆從寶出, 堆滿樓臺.

그때 태자는 부황께 주청하여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여쭙었다. 부황은 명을 내려 창고를 열어 여의주를 꺼내 태자에게 주게 하였다. 선우태자는 그 보물을 높은 누각에 두고 부모와 처를 청해 함께 누각에 올랐다. 보정(寶鼎)에 해안(海岸)의 유명한 향을 사르고 종과 법고를 울리며 생황을 연주하고 갖가지 진기한 음식을 차려 그 보물을 공양하고는 머리를 조아리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현재의 모든 불보살과 응세(應世)의 나한, 삼계(三界)의 천선(天仙), 사부(四府)의 영관(靈官), 석범(釋梵)과 사천왕(四天王), 일월(日月)과 성두(星斗), 양원(陽元)과 수철(水喆) 모두에게 함께 증명해주기를 기도하며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바다 보배가 정말로 영험함이 있다면 중생을 구제해주시시오.” 그러자 노을빛은 만 가지 색으로 찬란하고 보배들이 누각을 뒤덮었는데, 갖가지 진기한 물건들과 옷가지, 음식들이

170) 寶鼎 : 정(鼎) 모양의 향로.

171) 百味珍羞: 갖가지 진기한 음식.

172) 應世羅漢: 응세(應世)는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응화(應化) 즉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應世羅漢은 應世한 羅漢을 말한다.

173) 三界天仙: 삼계(三界)는 중생이 생사유전(生死流轉)한다는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세 단계 미망(迷妄)의 세계를 말한다. 삼계천선(三界天仙)은 삼계(三界)에 있는 신신들을 말한다.

174) 四府: 도교에서 천신이 사는 천정(天庭)에 존재하는 네 개의 부서를 말한다.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에 의하면 도교에서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은 뇌부(雷部)의 최고 천신(天神)이다. 뇌부(雷部)에는 신소옥부(神霄玉府)라는 총부가 있으며 아래에 내원(內院), 중사(中司), 동서화대(東西華臺), 현관묘각(玄館妙閣), 사부(四府)와 육원(六院) 및 모든 유사(有司)가 있고 각각 조국(曹局)으로 나뉜다. 《無上九霄玉清大梵紫微玄都雷霆玉經》에 따르면 사부(四府)는 구소옥청부(九霄玉清府), 동극청현부, 東極靑玄府, 구천응원부(九天應元府), 동연옥부(洞淵玉府)를 말한다.

175) 靈官: 영관(靈官)은 선관(仙官) 즉 선경(仙境)의 관원(官員)을 의미한다.

176) 釋梵四王: 석범(釋梵)은 도리천(初利天)의 임금 제석(帝釋)과 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인 범천(梵天)을 함께 일컫는 말이며, 사왕(四王)은 사천왕(四天王)을 말한다.

177) 霞光: 노을 빛.

모두 여의보주(如意寶珠)에서 나와 누대를 가득 채웠다.

太子歡喜, 賑濟衆生, 檀波羅密¹⁷⁸⁾具足, 隨心滿願, 遠近俱赴, 應用不缺, 悉皆飽滿. 尙時, 善友同妻, 不戀皇宮富貴, 辭別父母, 回向山, 結草爲庵, 修行亦道, 然後功成行滿. 二人亦同坐化. 昔日, 善友太子者, 卽釋迦佛是, 惡友者, 提波達多¹⁷⁹⁾是. 其父母者, 卽淨飯王,¹⁸⁰⁾ 摩耶夫人¹⁸¹⁾是, 妻是耶輸夫人¹⁸²⁾是也.

태자는 기뻐하며 그것들로 중생을 구제하였으니 단바라밀(檀波羅密)은 충분히 갖추어졌다. 그렇게 마음을 따라 바라는 바가 충족해지니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이들이 모두 나아가 그것을 써도 모자람이 없으며 모두 충분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때 선우는 부인과 더불어 황궁의 부귀에 미련을 버리고 부모님과 이별하여 산으로 돌아가 풀을 엮어 암자를 짓고 도를 수행하였다. 그러한 후에 공덕에 이루어짐이 있었고 수행은 만족스럽게 되었다. 두 사람은 또 함께 앉아서 돌아가셨다. 지난날 선우태자는 바로 석가모니이시고 악우는 제바달타(提波達多)이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정반왕(淨飯王)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摩耶夫人)이다. 한편, 태자의 부인은 바로 야수다라(耶輸陀羅) 부인이다.

< 參考文獻 >

*자료

吉祥 編著, 《佛教大辭典》, 서울: 弘法院, 1996.

178) 檀波羅密: 단(檀)은 산스크리트어 dana의 음역으로 보시(布施)하는 사람의 뜻이며, 바라밀(波羅密)은 도(度)·도피안(到彼岸)이라는 뜻이다. 즉 세존께서 가르치신 수도자가 추구하여야 할 여섯 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 보시바라밀을 말한다.

179) 提波達多(제바달타): 원명은 데바닷타(Devadatta)이다. 석가의 중형제로 석가에게 반대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로 알려져 있다. 후세에 전설화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180) 淨飯王: 석가모니의 아버지

181) 摩耶夫人: 석가모니의 어머니

182) 耶輸夫人: 원명은 '耶輸陀羅夫人'으로 석가모니의 부인이다.

少室山人 校正 伊府(朝鮮) 刊, 《釋迦如來十地修行記》, 木板本, 姜銓燮 所藏本, 1660; 刊記: 大明正統戊辰(1444)端陽伊府用梓命工刊行.

少室山人 校正 伊府(朝鮮) 刊, 《釋迦如來十地修行記》, 木板本, 高麗大 所藏本, 1660; 刊記: 大明正統戊辰(1444)端陽伊府用梓命工刊行.

少室山人 校正 伊府(朝鮮) 刊, 《釋迦如來十地修行記》, 木板本, 延世大 所藏本, 1660; 刊記: 大明正統戊辰(1444)端陽伊府用梓命工刊行.

(표지)《逐機別談》:《釋迦佛十地修錄》, 筆寫本, 東國大 所藏本, 年代未詳.

(표지)《十地錄》:《釋迦如來十地修行經》, 筆寫本, 表忠寺 博物館 所藏本, 年代未詳.

(표지)《十地行錄》:《釋迦如來十地行略錄》, 筆寫本, 中央僧伽大學校 所藏本, 年代未詳.

安震湖 編, 《釋迦如來十地行錄》, 懸吐活字本, 京城: 法輪社(卍商會), 昭和11[1936].

安震湖 編, 《서가여래십지행록》, 國譯活字本, 京城: 法輪社(卍商會), 昭和14[1939].

정서운 譯解, 《佛陀의 十地行蹟》, 現代譯本, 서울: 明文堂, 1978.

雷文治 主編, 《近代漢語虛詞詞典》, 北京: 河北教育出版社, 2002.

許少峰 編, 《近代漢語大詞典》, 北京: 中華書局, 2008.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신집성문헌 (<http://kabc.dongguk.edu>)

CBETA 漢文大藏經 (<http://tripitaka.cbeta.org/>)

*저서 및 논문

김보현, <《서가여래십지행록》에 대한 ‘연속 설화’의 의미화 과정 연구>, 《우리문학연구》 58, 2018.

김영배, <新發見 《月印釋譜》 毀損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68・69, 1975.

박광수, 《善友太子傳의 系統的研究》,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박명동, 《불경 전래설화의 소설적 변모 양상》, 서울: 역락, 2003.

사재동, <<선우태자전> 연구>, 《어문연구》 9, 1976.

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어문연구》 12, 1983.

신명래, <<적성의전(積成義傳)>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위치>, 《한국어와 문화》 8, 2010.

연소영, <佛經故事의 中國故事化 과정상의 특징 및 의의>, 《중국어문학논집》 115, 2019.

윤순일·박원기·한운진,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의 譯註(1)>, 《중국어문학논역총간》 45, 2019.

이강옥,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 勸念要錄, 釋迦如來十地行錄(記), 賢愚經, 善事太子入海品, 적성의전, 육미당기>, 《고전문학연구》 4, 1988.

- 최연식, <조선후기 불교소화집의 수용과 유통>, 《佛敎學報》 80, 2016.
- 최호식,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의 小說史的 展開》,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方廣錫, <《佛說孝順子修行成佛經》의若干資料①>, 《南亞研究》 (2), 2007.
- 方南生, <<雙恩記>創作年代初探>, 《社會科學》 (5), 1983.
-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簡佩琦, <敦煌報恩經變與變文<雙恩記>殘卷>, 《敦煌學輯刊》 (1), 2005.
- 束景南·郝永, <論敦煌本《佛說孝順子修行成佛經》的文學成就>, 《西安電子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6), 2006.
- 王 孟, <談敦煌遺書《佛說孝順子修行成佛經》的研究>, 《敦煌研究》 (4), 2015.
- K. S. 케네스 첸(Kenneth Kuan Sheng Ch'en) 저, 장은화 역, 《중국인의 삶과 불교의 변용》, 서울: 씨아이알, 2012.

< Abstract >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Seokgayeoraesipjisuhaenggi*(釋迦如來十地修行記)(2)

Yoon, Soonil · Park, Wonki · Han, Oonjin

This work is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Seokgayeoraesipjisuhaenggi*(釋迦如來十地修行記). *Seokgayeoraesipjisuhaenggi* is a collection of Buddhist novels first written by a man named Sosilsanin(少室山人) in 1382. It is about Śakyamuni(釋迦牟尼)'s past life and life story.

First, we compiled the main story of each bhūmi(地) and described other literary works that are highly relevant in story. Next, we translated <The third bhūmi(第三地)>, <The fourth bhūmi(第四地)>, <The fifth bhūmi(第五地)>, <The sixth bhūmi(第六地)> and added many informative annotations. <The third bhūmi(第三地)> is the story of king Dana[Surupa](布施國王[妙色王]), <The fourth bhūmi(第四地)> is the story of crown prince

Mahāsattva-kumāra-rāja(摩訶薩埵太子), <The fifth bhūmi(第五地)> is the story of monk Kṣāntivādin ṛṣi(忍辱仙人), <The sixth bhūmi(第六地)> is the story of crown prince kalyāṇamitra(善友太子).

It has important significance to study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and Chinese language, in that it was an early form of Bianwen(變文) written in early modern Chinese.

Key words: *Seokgayeoraesipjisuhaengi*(釋迦如來十地修行記), Buddhism, Bianwen (變文), Telling and Singing literature, Nakeunbon, Early Modern Chines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7. 27.	2019. 8. 11.	2019. 8. 26.	2019. 8. 29.	2019. 9. 30.

